



보도시점 2026. 3. 30.(월) 9:00 배포 2026. 3. 27.(금)

2026년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

- 고정식 1,400MW 내외, 부유식 400MW 내외 물량 공고
-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은 고정식 400MW 내외 별도 배정
- 고정식(171.229원/kWh), 부유식(175.100원/kWh) 입찰 상한가 분리 적용
-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함께 계약단가 단계적 안정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3월 30일 오전 9시에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유효 경쟁률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입찰 물량을 정하고, 전 세계 해상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자본비용(CAPEX, Capital Expenditure) 변동 추세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가격을 일부 조정했다. 아울러 상반기에만 기가와트(GW) 단위의 대규모 해상풍력 물량을 제시하여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해상풍력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안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총 공고 입찰 물량은 1,800MW 내외의 규모로 고정식 해상풍력 1,400MW 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400MW 내외를 각각 공고한다.

먼저,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물량은 총 1,400MW 내외 규모이며, 이 중 일반 입찰 공고 물량은 1,000MW 내외, 공공주도형 입찰 공고 물량은 400MW 내외이다.

지난해(2025년)에 신설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은 올해도 동일한 요건으로 운영되며,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한 공공부문 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 이행 안정성 제고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공급망 안보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총 400MW 내외를 공고한다. 특히 올해는 부유식 입찰 상한가격을 고정식 상한가격과 분리하여 적용한다. 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고정식과는 다른 입지 조건, 기술 수준, 공급망 여건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전 세계 해상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자본비용(CAPEX) 등 시장 여건과 기술 발전 추세,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했다. 고정식 해상풍력의 입찰 상한가격은 171.229원/kWh 수준이며, 부유식 해상풍력의 입찰 상한가격은 175.100원/kWh 수준으로 각각 전년 상한가 대비 △3.02%, △0.83% 하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입찰을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함께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출발점으로 보고, 앞으로도 경쟁 촉진, 기술혁신,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국가 핵심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위험성을 초기에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입찰부터 입찰 참여 희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군 작전성 협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군 작전성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는 군 작전성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고문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후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해상풍력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입찰 참여 희망 사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군 작전성 협의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60)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동기 (044-201-7752)